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삼익 세라믹 아파트에 불이 나 소방관들이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학동 삼익세라믹 불 주민 100여명 대피 소동

소방관 1명 중화상

20일 오후 6시33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삼익 세라믹 APT 101동 1202호 박모(65)씨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박씨의 45평짜리 아파트 1202호와 바로 위층인 1302호가 전소됐고, 1402호 일부가 불에 그슬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바람에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진화 과정에서 동부소방서 소속 박성준(32) 소방사가 팔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원지교~배고편다리 도로 통행을 막아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날 화재는 아파트 주차장에 2중으로 늘어진 승용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20여 분간 지연되고, 출동한 고가 사다리 소방차 1대마저 고장 나면서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

아파트 주민 박모(45)씨는 "주차장 통로에까지 늘어진 승용차를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불길의 확산됐으며, 사다리차 1대가 고장이 나기도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크레인선박, 송전선로 절단 신안 15,000가구 전기 끊겨

대형 선박 인양 크레인 선이 고압 송전선로를 끊는 바람에 신안지역 6개 면 1만5천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5시12분께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와 암태도를 잇는 높이 29m의 6

만 6천kV 대형 고압 송전선로가 그 밑 해상을 지나던 크레인 선의 크레인에 걸려 절단됐다.

이로 인해 신안군 암태면과 자은, 팔금, 도초 등 6개 면 지역 1만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선풍

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사고후 1시간여만에 안좌면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곧바로 1만1천여가구에는 전기공급이 이뤄졌으나, 4천여가구에는 여전히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일대 양식장 200여 개소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돼 양식장 어민들이 자체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 선로 완전 복구에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육지에서 비상 발전기를 긴급 공수해오고 있다"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대형 크레인을 싣고 인천으로 향하던 현대 9001호가 송전선을 절단하면서 일어났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나원침 (6912)



연예자 동리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한겨울 찾아온 노부모 병방 방지 숨지게



○영하 10도의 엄동설한에 노부모를 병방에 가두고 일주일 간 여행을 떠나 아버지를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결국 경찰서행.

○서울 강남경찰은 20일 한겨울 자신의 집에 찾아온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손속유기치사)로 박모(47·서울 강남구 삼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사장인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께 자신의 빌라에 온 노부모를 골방에 들인 뒤 밤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고 보일러와 전화 코드를 뽑은 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아버지(81)를 동상과 패혈증,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

○박씨는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7월 초부터 말문을 연 어머니의 증언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부모와 부딪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집을 떠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연합뉴스

민어 풍어...임자도 "대박났네"

신안군 바닷모래 채취금지로 먹이 돌아와

어획량 덩달아 급증...어선 70여척 '복새통'

한 때 동북아 제일(第一)의 민어(民魚) 어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신안 임자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신안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 뒤 새우 등 민어의 먹이가 돌아오면서 민어잡이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유자망 어선 '정덕'호(7.93t)의 운영철 선장은 20일 하루리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출항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복더위에 민어점은 일품, 도미점은 이품, 보신탕은 삼품"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어잡이는 7월 말~9월 초 한여름에 성황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매일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한사리'(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밀물과 가장 높은 때)때만 걸려든다. 밀물 수위가 4m가 넘으면 민어가 흐드러지게 잡힌다는 것이 선원들의 설명. '정덕'호는 지난 '한사리'때는 4일간 160kg의 민어를 잡았다고 한다.

4일간 160kg 잡기도

올해 임자도 민어잡이는 옛 명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활기를 띠고 있다. 보통 40여 척이던 민어잡이 어선이 외지 선박까지 가세해 70여 척으로 늘었다.

어획량도 지난 18일 현재 4만1천kg(위관액 8억9천300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천kg(6억7천600만원)보다 32.8% 늘었다. 지난 2004년

위관액(2억7천만원)에 비하면 3.3배나 증가한 셈이다.

어민들은 신안군이 지난 2002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못 하게 하면서 민어가 잘 잡히고 있다고 했다. 민어의 먹이인 새우가 되돌아와, 민어도 많아졌다. 또 농어목 민어과 민어속의 연근해 물고기인 민어는 새우류를 좋아하는데, 임자도 근해에 서식하는 중국젓새우와 돛대기새우는 민어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다.

동북아 최고 품질 자랑

임자도 민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임자도 민어는 건어물로만 들어 방망이로 두드리면 부스러지는 다른 민어들과 달리, 고기의 육질이 솜처럼 부풀어올라 '기 막힌' 맛을 낸다. 일제시대 때는 이 맛에 감탄한 일본인들이 임자도로 몰려들었고, '타리'(台耳魚·임자도 인근 섬) 민어 파시(波市)는 수백 명의 어부로 복새통을 이뤘다.

올해 민어의 특징은 어획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민어 1kg은 지난해보다 5천~6천원 높은 평균 2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한사리'가 아니어서 민어가 잡히지 않았던 이달 초순에는 kg당 3만3천원까지 값이 치솟기도 했다. 신안수협 박종수(53)과장은 "육지



민어잡이 유자망 어선 '정덕'호(7.93t) 선원들이 포획한 민어를 그물에서 꺼내고 있다. 임자도 민어잡이는 신안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 이후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신안 임자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서 민어를 찾는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세를 잇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993년~2002년 2천100만㎡의 바닷모래가 사라져 생

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신안=조완남·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株) 행복출발은

광주에서 10년간의 고독 투쟁을
한정하고 많은 성공적인 결과
이제는 우리 회사 제품 판매를 도와주고
홍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00%까지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출발입니다.

최종수 1부 한국에서 10년간 투쟁 - 행복출발

www.happyoutlet.com

062-333-3388

제일모직 outlet 판매지구 사거리

제일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최저품 1회 가격으로 2회 혜택

60~40% 할인

www.happyoutlet.com

062-333-3388